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박 정 미

김 은 하†

단국대학교

본 연구는 기러기 엄마로 살아온 중년 여성이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정체성을 지각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탐구한 자전적 내러티브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회상 기억, 교육 분석, 일기, 전자메일, 메모, SNS 등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시간, 공간,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삼차원의 내러티브 탐구 공간(three dimensional narration inquiry space)을 통해 분석한 경험을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그 주제에 나타나는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 변화 과정은 주로 가족 관계에서의 역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러기 엄마의 삶에서는 '무능한 엄마'에서 '가족의 중재자'로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며, 재결합 후의 삶에서는 상실감으로 '무기력해 하던 엄마'에서 '그냥 나로 거듭남'으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내러티브를 쓰고, 다시 이야기 하고, 그 의미를 찾는 자전적 내러티브 과정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성찰을 통하여 정체성의 의미를 찾아보면, 첫째,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은 자녀와의 극심한 밀착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심리적 독립의 형태로 바뀌어져 감을 보여준다. 둘째, 과거의 삶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던 피해자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 변화 과정에서 절망-배움을 통한 전환-회복의 과정을 가짐을 알게 되었다. 넷째, 아직도 가족이 분거 중이고, 기러기 가족에 대한 정체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유동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기러기 엄마, 재결합, 중년 여성, 정체성 변화,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 본 논문은 박정미(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은하,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E-mail: eunha@dankook.ac.kr

현대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서구화 등으로 빠르게 변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변하기 시작했다(유준호, 홍은주, 2012). 우리 사회에서도 한 부모가족, 조손 가족, 재혼 가족, 미혼모 가족, 입양 가족, 기러기 가족, 켄거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났다(강유진, 2009).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기러기 가족은 자녀를 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면서 아내를 자녀와 함께 동반시키고 부부가 분리되어 생활하는 형태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는 다른 속성을 보인다(최양숙, 2005). 기러기 가족은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부모의 희생과 고통은 감수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나 전략으로 생각하며(최양숙, 2006; 김양호, 김태현, 2009), 가족 경제의 문제, 부부 갈등, 가족의 해체, 외로움으로 인한 탈선 등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기러기 가족을 통하여 가족의 고생에 대한 감사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연구도 있어(최양숙, 2006; 김양호, 김태현, 2009; 김희정, 최연실, 2012), 새로운 가족의 한 형태로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러기 가족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현지 적응의 부담감, 자녀 양육의 책임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기러기 엄마라는 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선미, 2007, 2009).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러기 아빠의 분거 경험(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조은숙, 2010; 최양숙, 2008), 생활 변화와 적응(김성숙, 2006), 교육적 희망과 갈등(이두휴, 2008) 등 기러기

아빠의 생활의 불편함을 중심으로 연구(김양희, 장은정, 2004)가 이루어져온 반면, 기러기 엄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기러기 엄마의 현지 적응에 대한 실태 조사로, 현지에서의 기러기 엄마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김양호, 김태현, 2009). 기러기 엄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김선미(2007, 2009)는 기러기 엄마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러기 엄마의 삶의 과정과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강유진(2009)은 기러기 엄마들을 비교 분석하여 기러기 가족의 관계 역동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최근 기러기 엄마의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경화(2010)는 기러기 엄마의 기러기 생활 적응 경험을, 조인효, 김미선(2014)과 조인효, 심은정(2014)은 관계 문화 이론적 관점에서 기러기 엄마의 적응을, 양미진, 손재환, 김인규(2014)는 기러기 엄마의 성공적인 적응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기러기 엄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기러기 엄마의 현지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결합 과정에서의 고국 적응 및 적응 과정에서의 정체성 변화 등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년기에 고국으로 돌아와 재결합 과정을 경험하는 기러기 엄마는 보통의 중년 여성이 겪을 정체성의 변화보다 더 극심하게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러기 엄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이들의 뒷바라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김경화, 2010; 김희정, 최연실, 2012; 김영희, 최명선, 이지향, 2005), 가족의 분거로 인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속해 살면서도, 한국과 미

국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살아온 특수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 할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미, 2009). 또한, 자녀가 미국에서도 한국인으로 살아주기를 바랬던 기러기 엄마와 미국인이 되기를 원했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에 살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좋을 엄마와 자녀 사이의 정체성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김선미, 2007), 자녀 교육에 대한 과중한 책임 문제를 가지고 있던 기러기 엄마들이 기존의 역할을 상실하고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백지연, 2015).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 위기를 우려하는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중년기의 기러기 엄마가 어떤 정체성의 갈등을 겪었는지, 정체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정체성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장휘숙, 2013), 인생의 특정한 어느 한 시점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 동안 계속 변화하고 발달해 간다(Erikson, 1968; 조혜자, 2002; 장휘숙, 2013).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노화, 일에 대한 한계감, 역할의 상실, 죽음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인생의 계획을 새로 설정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김경신, 김정란, 2001; 변외진, 김춘경, 2007; 장영림, 2013). 현대에 이르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여성의 고용과 여가가 증대되면서, 자녀 양육기는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중년기가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여성의 중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김경신, 김정란, 2001; 이경혜, 김언주, 2001). 이 시기에 새로 설정되는 자아정체성은 노년

기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자아정체성은 자기를 확립하게 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낮은 자아정체성은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삶의 질은 저하시키고 적응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김경신, 김정란, 2001; 최원희, 2006; Helson & Srivastava, 2001). 즉, 중년기의 위기감은 자아정체감 및 자아분화, 가족 및 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 우울, 소외감 등의 정서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주로 역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 김정란, 2001; 이경혜, 김언주, 2001; 변외진, 김춘경, 2007; 김춘경, 2010; 이복희, 2008; 이복희, 박아청, 이경혜, 2010; 이옥희, 이지연, 2012; 장영림, 2013).

국내에서 중년여성의 정체성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중년 여성의 위기감 연구를 중심으로, 중년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이남주, 2006; 이복희 등, 2010; 백지연, 2015, 2016).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김경신, 김정란, 2001; 변외진, 김춘경, 2007), 건강 상태, 부부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김경신, 김정란, 2001), 자녀수와 막내 자녀의 위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시부모 부양(최원희, 2006), 여성의 상황과 조건에 따른 관계적 자아(조혜자, 2002) 등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년여성의 직업 유무에 따라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직업을 가진 중년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고, 무직의 중년 여성의 경우, 가족 내의 역할,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이경혜, 김언주, 2001). 이 가운데 자녀 양육 역할(Barnett & Baruch, 1985; Steinberg & Silverberg, 1987; 김경신, 김정란, 2001; 최원희, 2006; 정은숙, 2009; 태유월, 구자경, 2014)과 직업 역할에 대한 적응(Adelmann, Antonucci, Crohan & Coleman, 1989; 이경혜, 김언주, 2001; 이복희 등, 2010)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원희, 2006). 결국, 역할에 대한 적응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과 생성감이 높아지고(이경혜, 김언주, 2001), 사회적 역할에 따른 만족 경험과 자아정체성 확립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년기 기리기 엄마의 정체성 확립은 현지 생활과 재결합 과정에서 급격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중년기 기리기 엄마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기리기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결합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능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의 재결합을 도와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리기 엄마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를 탐구하기 위하여, 기리기 엄마로 살았던 삶의 경험과 재결합 후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 삶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기리기 엄마들의 정체성의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년기 기리기 엄마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

타나는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한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자서전적 접근 및 정체성 탐구에 적합하며(Freeman & Brockmeier, 2001; Clandinin & Connelly, 2007),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리기 엄마였던 연구자이면서 연구 참여자인 '나'의 경험을 연구한 것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리기 엄마로 살았던 경험과 재결합 후의 경험을 과거 회상 기억, 일기, 전자 메일, 메모, 사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육 분석 성찰일지 등을 이용하여 자료로 만들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주관적인 경험의 내러티브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기리기 엄마는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기리기 엄마는 정체성의 변화를 통하여 어떤 의미를 발견하였는가?'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나'이다. 연구자이면서 연구 참여자인 나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살았던 기리기 엄마였고, 2013년에 자녀들은 미국에 남겨둔 채 홀로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3년부터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고, 현재 교회 소속 상담실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연구자가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못했던 기러기 엄마였다는 고백은 석사 논문 주제를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갈등을 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했던 기러기 생활에 대해, 나의 역사였던 기러기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과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되어져 있는 기러기 가족에 대해 함구하지는 양가적인 마음이었다. 또 기러기 가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러기 엄마의 현지 적용에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가족의 한 형태로서 기러기 가족에 대한 이해와 장기 분거 가족 연구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기러기 엄마로 살면서 현지에서 느낀 선입견이나 심리적 갈등을 당사자가 아닌 관찰자로서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었다. 또 매스컴에서 ‘기러기 아빠의 비극’¹⁾이나 ‘기러기 엄마의 탈선’²⁾에 대한 기사가 보도 되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던 기러기 엄마들마저도 ‘자식에 미쳐 남편을 내 쫓개친 여자’³⁾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⁴⁾. 따

라서 기러기 엄마로 살았던 연구자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기러기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세월이 흘러 중년으로 돌아온 기러기 엄마는 재결합 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내부자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많은 기러기 가족들 가운데 상담학 전공자이면서 기러기 엄마로서,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자녀들을 이국에 두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부부간의 재적응 과정을 경험하는 기러기 엄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상담학에서 기러기 엄마에 대한, 특히 중년의 기러기 엄마의 재결합 후 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상담학도이자 기러기 엄마인 ‘나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기러기 엄마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료수집

내러티브 데이터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억 회상, 일기, 전자 메일, 메모, 사진, 비공개된 SNS 자료, 교육 분석 자료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기러기 엄마로 사는 동안 자녀 행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사진과 메모, 일기와 순간순간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간단히 기록한 글들이 자료로 이용되었고, 특히 재결합 후 상담을 공부하면서 교육 분석 과정에서의 분석 기록과 성찰일지도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SNS가 대중화되기 이전, 자료의 대부분은 일기, 전자 메일, 사진과 함께 작성 해둔 메모를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SNS가 대중화 되고 난 후, 대부분의 자료는 싸이 월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스토리와 밴드를 이용하였는데, 주로

- 1) ‘기러기 아빠의 자살’에 대한 기사는 2005년 10월 21일 한국일보, 2008년 12월 10일 조선일보, 2013년 11월 9일 중앙일보 등에 나타나 있다.
- 2) ‘기러기 엄마의 탈선’에 대한 기사는 2003년 9월 1일 매일경제신문, 2010년 5월 12일 미주한국일보, 2013년 4월 24일 조선일보 등에 나타나 있다.
- 3) 조인효, 김미선(2014)의 연구에서 기러기 엄마는 자녀 교육을 위해 남편을 버려두고 홀로 외국에 나간 것으로 나타난다.
- 4) 김양호, 김태현의 연구(2009)에서 기러기 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을 의식해서 심층면접을 꺼려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표 1. 연구자료 현황

자료출처	기간	주요내용
일기	2001년 1월- 2012년 12월	주요 사건 및 반성
이메일	2001년 1월- 2018년 현재	가족과의 소통
사진 및 메모	2001년 1월- 2012년 12월	주요 사건 및 기억 확인
SNS자료	싸이월드: 2001년 7월- 2010년 카카오톡: 2010년 4월- 2018년 카카오프스토리: 2012년 4월- 2018년 밴드: 2013년 7월- 2018년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
개인분석	2015년 8월- 2015년 12월 2018년 7월- 2018년 12월	성찰 및 반성
가족 및 지인 인터뷰	2018년 5월- 2018년 10월	기억 회상 확인 및 보완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과 간단한 일기 형식으로 적어놓은 것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연구자의 기억 회상 자료는 개인의 기억이 특정한 시각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한계점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기억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해서(김계순, 2018), 과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의 왜곡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는 표 1과 같다.

연구자료분석

내러티브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Clandinin 과 Connelly(2000)가 제안한 삼차원의 탐구 공간(three dimensional narration inqui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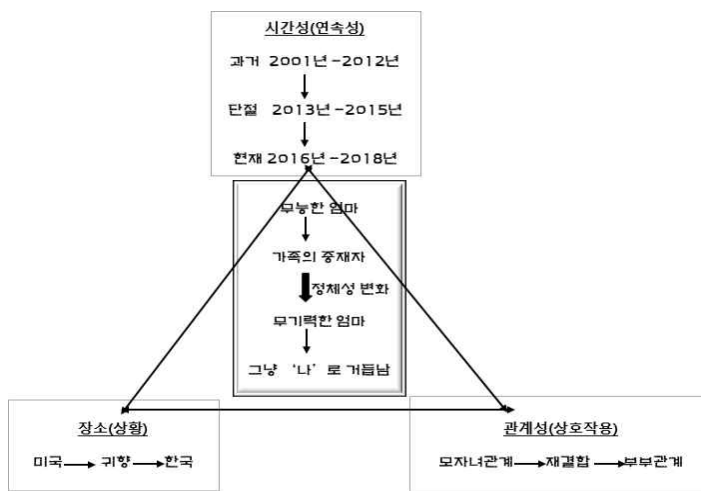


그림 1. 3차원적 공간 분석

space)을 활용하였다. 삼차원의 공간은 참여자의 경험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공간으로, 장소(상황), 시간성(연속성), 관계성(상호작용)을 각 축으로 하지만, 각 차원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간성(연속성), 장소(상황), 관계성(상호작용)이라는 각각의 차원에서 참여자가 경험한 내용의 변화 및 정체성의 변화를 그림 1로 나타내었다.

연구절차

연구 진행 절차는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5단계 과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 과정은 현장에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겹치기도 하고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염지숙, 2003; 백지연, 2015). 1단계 ‘현장에 들어가기’ 단계는 연구 시작의 단계로, 국내 기러기 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읽고 기러기 가족 가운데 왜 기러기 엄마의 연구가 필요한지, 무엇에 대해 쓸 것인지 고민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읽고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 보았다. 2단계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는 단계는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러기 엄마 및 재결합 후 적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그 가운데 사진과 메모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가족과 지인에게 전화와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 분석하였

고, 년도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였으며, SNS는 싸이월드,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단계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단계는 모든 수집된 자료를 텍스트화하고, 반복해서 읽고 그 중에서 연구 목적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여 구성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특별한 형식 없이 내러티브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왜 기러기 엄마가 되었는지, 어떻게 재결합하게 되었는지를 시작으로 자녀들의 사진 속에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여, 일기나 전자 메일에서 정체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을 간추려서 시간 순으로 작성하였다. 4단계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 단계는 주제를 범주화하는 단계로, 나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기러기 엄마의 삶과 재결합 후의 삶으로 나누었다. 상위주제로 나누어진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읽어 하위주제로 나누고 제목을 정하였다. 하위주제와 상위주제와의 연관성을 살피고 각 주제와 예시가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았다. 5단계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단계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재구성하여 작성하는 단계이다. 내러티브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이면서 연구 참여자인 연구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상담학 전공 교수 2인의 피드백을 받아 재구성된 내러티브의 내용을 다시 고쳐 쓰고 제목이 적절한지 논의하였으며, 상담 석사 학위 이상 동료 2인의 피드백을 받아 내러티브의 내용과 제목에 대해 논의 하였다. 둘째, 연구자인 동시에 연구

표 2. 자료 분석에 따른 주제별 범주

상위주제	하위주제
기러기 엄마의 삶	1.1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1.2 어디에도 나는 없다 1.3 바보같은 엄마 1.4 버거운 해결사 1.5 콩알만큼 작아지다 1.6 엄마가 아닌 내가 설 자리
재결합 후의 삶	2.1 낯선 내 자리 2.2 더 이상 내가 아니다 2.3 기러기의 흔적 2.4 이정표 만들기 2.5 조금씩 달라지기

참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로서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로서 기록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로서 기록을 하고 일주일 정도의 기록이 쌓이면 그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연구자로서 분석하는 훈련을 질적 연구 방법론 탐구와 더불어 일 년 이상 수행하였다.

명 가운데 10명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모두 영어권의 나라로 유학을 갔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영어 하나만 잘 하면 된다고, 큰 돈 들이지 않고 한국보다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당연히 가야된다고 생각했다.

결 과

연구 결과는 ‘기러기 엄마의 삶’과 ‘재결합 후의 삶’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맞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경험을 재구성 하였다.

기러기 엄마의 삶

2000년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유치원 조기 영어 바람이 불면서 앞집도 옆집도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앞 다투어 나가기 시작했다. 딸아이의 중학교 1학년 3반 어머니회 회원 10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처음부터 기러기 가족이 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떠났던 것은 아니었다. 2001년, 남편의 안식년으로 우리 가족은 모두 미국으로 떠났고, 한국으로 귀국을 생각할 무렵, 교육 정책의 변화로 수능과 대신 정책이 달라지면서, 아이들을 또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서 고생시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었고,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이 떨어져 살기로 결정했다. 솔직히 나는 한 번도 미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 흔한 빵이나 떡 하나 먹을 수 없는 나라. 남편 때문에

오게 된 미국에서 남편도 없이 외톨이처럼 살아야한다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좀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지금과 달리 070 인터넷 전화만이 유일한 남편과의 소통 수단이었으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아는 사람이나 책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던 시절 그렇게 나는 용감하게 기러기 엄마가 되었다.

내가 살던 학교 타운 하우스 앞에는 작은 종탑이 하나 있었다. 새벽이면 종탑 아래에서 유난히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고 풀밭 여기저기에 사슴과 토끼가 뛰어놀던 곳. 인구 5만 명의 미국 중부의 작은 시골 도시로 한국 사람들이라고는 약간의 교포들과 유학생이 전부였다. 미국에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진 A주의 B시가 우리의 새로운 터전이었다. 친절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아이들과 잘 지낼 거라던 남편의 믿음과는 달리, 나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2002년 가을, 아는 미국 사람이 추수 감사절에 자기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왔다.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미국 사회에서 가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회생활이 단절되는 것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남편이 있을 때와 달리 그런 초청을 받으면 갈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지낸다는 현실을 짧은 영어로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그들을 이해시키면서까지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또 가족이 어울리는 자리에 나만 남편 없이 간다는 것에 스스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 때부터 나는 한국의 가족들에게서도 지나 인정을 못 받는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되

기 시작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과 떨어져 산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야 했다. 시집에서는 남들 다 키우는 애를 혼자 유독 별나게 키우는 '별난 며느리'였고, 친정 엄마마저도 '남편 떼어 놓는 것 아니다'고 했고, 친구들은 부러움 반 걱정 반으로 '가정의 파과'를 예고했다. 어디에도 나를 지켜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남편과 한 달 전화비가 100만원이 나와도 울면서 남편과 통화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남겨두고 간 남편에 대한 야속한 생각도 들고, 이 일이 언제 끝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다.

어디에도 나는 없다

늘 여자들의 수다가 그리웠다. 깔깔 웃고 싶고... 누군가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아픈지 기쁜지 살아있는지... 아무도 내겐 관심이 없었다. 그냥 아이들 엄마만이 있을 뿐.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가 흔들릴까봐 아무리 아파도 아이들 앞에선 늘 씩씩한 엄마 인척 해야만 했다. 하소연하고 싶은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남편에게 징징거릴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라도 한국말로 맘껏 이야기 하고 울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았다.

젓바퀴처럼 돌아가는 미국 사회에서 모든 스케줄이 아이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전쟁처럼 또 하나의 일과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나는 슈퍼우먼으로 변신하여, 요일에 맞춰서 아이들 after school activity를 보내

야 되는데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잘 체크해야 한다. 기분은 어떤지, 몸 상태는 어떤지, 몸이 안 좋은 날은 쉬게 해야 할지 병원으로 데려 가야 할지,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 놀게 해야 할지 레슨에 데려가야 할지.... 엄마이기에 앞서 운전사, 비서, 요리사, 심지어 간호사까지 되어야 한다. 차 한 대로 이곳저곳 아이들 실어 나르고, 하루에 한 끼 한식을 먹어야 건강할 것 같아서 틈틈이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어 애들 레슨 시간 사이 사이에 차에서 저녁을 먹인다. 작은 애가 먼저 끝나면 큰 애가 끝날 때까지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하게하고, 큰 애까지 레슨이 다 끝나면 도서관에 있는 작은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늦은 저녁 한국에 있는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지 통화하면 하루 일과가 끝난다.

바보같은 엄마

2003년 추운 겨울날이었다. 새벽 6시 15분이면 스쿨버스가 집 앞으로 왔다. 그런데 그 날은 아이들 둘이 스쿨버스 타는 데서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한참을 추운데서 떨다가 다른 집에 전화를 해보니 오늘이 snow day라 학교가 취소되었단다. snow day가 뭔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를 가야지 눈 좀 온다고 학교가 취소되다니,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눈도 많이 오고, 눈비가 내리기도 하도, 날씨가 변덕스러운 해였다. 그러나 그 날은 겨울 시작을 알리는 정도의 눈이 살짝 왔었고, 학교를 못 갈 정도의 날씨는 아니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취소한다는 거였다. 한국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가야되는 곳이 학교라고 배웠는데, 여

기에서는 날씨에 따라 1시간 또는 2시간 수업 시간 연기(delay), 수업 취소 등 등교 시간이 다양하게 조절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때 내 생각으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국의 상식으론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된다고 느꼈다. 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나는 그 앞에서 상식이 없는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다.

버거운 해결사

남편이 없는 미국 생활은 여자 혼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 처음에 기러기 엄마를 시작할 때, 한국에서도 바쁜 남편 대신에 뭐든 혼자 잘 해왔는데 미국에서도 아이들 뒷바라지쯤이야 하고 쉽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아이들과 살아보니 집 안에 고장 난 것 고치는 일, 자동차, 보험, 은행, 병원, 아이들 학교 일... 어떤 것도 익숙한 일도 아니고, 누가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 내가 해야만 했다. 집에 뭐가 부러지거나 바뀌어야 될 일이 있으면 일단 화가 났다. 이 일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서.

특히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는 최악이었다. 2004년 겨울, 아파트 입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가만히 서 있던 내차를 뒤에서 백인 노부부가 박은 거였다. 지금처럼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던 시절, 내가 박았느냐 박혔느냐를 떠나서 일단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고 난 것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했다. 경찰이 와도 사고에 대해 내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진술하는지, 상대방이 제대로 자기 과실에 대해 정확히 이야

기 하는지 등 신경 써야 하는 게 하나 둘이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라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고, 아는 사람들도 따뜻한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나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로 자동차를 끌고 가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험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보험사 직원 이야기만 다 믿어야 할지, 내가 언어 문제가 있어서 혹시 내게 불리하도록 진술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온갖 걱정이 다 되었다. 자동차나 자동차 사고를 어떻게 영어로 이야기 할 것인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싫었다.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해야만 하는 일인데 정말 하기 싫은 일 중의 하나였다.

콩알만큼 작아지다

아이들이 미국에 동화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영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어를 잘해서 아이들로부터 독립하고 남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다음 날 새벽 2시에 자는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열심히 무료 영어 클래스를 쫓아다녔다. 내가 미국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영어 클래스에서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과 관리 사무소 아저씨나 보험이나 우체국 아저씨,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는 몇 사람들이었다. 매일 영어 클래스를 갔지만 영어 실력은 생각처럼 쉽게 좋아지지 않았다. 아이들 학교에서 volunteer를 구한다고 해도 쉽게 나설 수가 없었다. 영어 때문에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실수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스갯거리가 될까봐. 그러면서도 영어에 주눅 드는 내가 자꾸 한심해졌다.

2006년 어느 날이었다. 한국 가는 비행기 예약을 하는데 항공사의 예약 확인 번호가 필요했다. 알파벳과 숫자만 불러 주면 되는 쉬운 영어였고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런데 항공사 시스템이 바뀌면서 기계가 확인을 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기계는 바보라서 내가 아무리 영어 알파벳을 정확하게 발음을 해도 “I don't understand” 말만 계속 했고, 결국 항공사에 예약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아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항공사에 전화해서 알파벳과 숫자를 확인해 주었다. 기계는 결국 아이들 말은 알아 듣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말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였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내 손으로 하지 못한다면 미국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자꾸 자괴감이 들고 미국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다 내가 점점 나이가 들고 아픈 데가 많아지고 병원에 가야되면, 부모가 아이의 짐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와 함께 살았던 나와 한국에 살았던 남편과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미국 아이들처럼 변해갔다. 한국 엄마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학교 친구들과처럼 옷을 입고 싶어 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영화를 보러가고 싶어 했고, 친구들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2세대가 지나면 한국인의 정체성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식으로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고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엄마가 아닌 내가 설 자리

2008년,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났다. 나는 아이들이 대학에 적응할 때까지 남아서 도와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혼자 빈 아파트에 남아 여전히 전화로 아이들을 깨워주고 하루 일과를 아이들과 나누었다. 남편에게 보고하던 하루의 일과를 언제부터인가 아이들과 나누게 되었고, 이제는 어른이 된 아이들을 여전히 아이처럼 돌보고 싶어 했다. 그 무렵, 나는 한인 성당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다. 한인 성당은 신자수가 100여명 내외의 작은 성당으로, 70년 대 이민 온 교포들과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미국 사회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인 성당이 유일한 한국 사회였다. 그들 눈에는 일도 안하고 한국에서 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소위 기러기 엄마라는 사람들은 참 못마땅한 사람이었다. 유학생들 눈에도 유학생도 아니고 현지 주민도 아닌 기러기 엄마는 직업 없이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러기 엄마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어쩌다 내가 기러기 엄마라는 것을 아시게 된 분들은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라'고 하신다. 옆 교회의 어느 목사님은 아예 강론 시간에 '기러기 엄마들은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같이 기러기 엄마를 하시는 분이 눈치 보여서 이제는 교회도 더 못 나가겠다고 걱정을 하셨다. 신문이나 방송에 기러

기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운 빠지게 하고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다. 괜히 세간의 입방아에 올라 기러기 엄마라는 게 더 부각될까봐.

2009년, 아이들이 앞으로 미국에 살 거면 나도 그들과 미국에서 함께 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영어를 제대로 해야 미국에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학에 등록을 하고 학부 1학년생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20여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학부 과정은 매일 시험이 있었고, 숙제도 많았고 한국에서 내가 다니던 대학과는 달리 공부할 게 너무 많았다. 다시 시작한 공부는 남들보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스트레스도 엄청났다. 시험에, 숙제에 잠 잘 시간이 없었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지금까지 내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너무 좋았다. 지금까지 아이들과의 대화가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엄마로서의 대화였다면 이제 같이 대학생활을 하는 친구로서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이나 학과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했다. 너무 바빠서 집에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도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았고, 몸이 힘들어도 괜찮았고, 영어를 못해도 괜찮았다. 희망이라는 게 생겼고,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이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이들만 대학 보내면 귀국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집 식구들에게는 공부한다고 미국에 더 있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 친정어머니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딸이 야속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늘 몸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재결합 후의 삶

처음부터 언제 귀국한다는 약속은 없었다. 그러나 막연하게 아이들 공부만 끝나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귀국하기 몇 년 전부터 나는 언젠가 닥칠 귀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이들 없는 한국에 산다는 것은 자신이 없었지만, 내 나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엄마 곁으로 간다는 그리움이 있으면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2012년 12월, 이제 내 몸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는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만신창이. 갈 데 없어서 돌아온 느낌. 아픈 나를 반기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가끔 다녀가던 한국과는 달리 다들 제 일로 바빠서 같이 놀 형편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낯선 서울이라는 도시에 버려진 느낌이었고, 거대한 공통과도 같은 이 도시에 예외적인 채 눈물이 났다. 두렵고, 외로웠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다.

낯선 내 자리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아도 사람들 말이 다 들리는 게 너무 신기했다.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쇼핑을 다니고, 마사지를 다니고. 지금까지 못해 본 것을 한꺼번에 다 해보았다. 자동차 소리에 사람들 소리,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었다. 누군가 미국이 '조용한 지옥'이라면 서울은 '시끄러운 천국'이라더니 블루칼라의 노동자에서 화이트칼라의 사모님으로 돌아온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나라에 돌아온 특전 같았고, 그 특전을 맘껏 누렸다.

2013년, 친구들이 미국에서 귀국한 나를 위

해 밥을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다. 친구들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행 다니고, 골프치고 안 해 본 것이 없다고 했다.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자금력이 아이들 인생을 좌우한다면서 놀면서도 해야 될 것은 다 잘 하고 산 듯했다. 거기 비하면 나는 해 본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공통의 화제도 없고, 이들의 삶이 부럽기도 하고 내가 산 인생이 허무하게도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남은 인생을 이들처럼 놓고 즐기며 보내야 한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참에 한국 사람처럼 한번 살도록 노력해보자는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내 생체 시계는 여기 와서도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는 노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무 것도 안하고 논다는 것에 대한 한심스러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사는 것 외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 몸이 아파서 아무 일이나 할 형편도 안 되었고, 일을 할 만한 것도 없었고, 놀아 본 적이 없는 나에게 놀아야 한다는 것 또한 고역이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이 '재미있는 천국'에서 홀로 이방인처럼 서 있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냥 우울했다. 아무 것도 하기 싫었고, 아무도 만나기 싫었다. 남편은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애들 잘 키우고 박사까지 다 만들고 왜 그러냐고. 아들딸이 박사라는 것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어디에도 나는 없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이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느낌. 내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나와 비슷했던 친구들이나 남편과 아이들조차 다 제 자리를 찾아갔는데, 나는 어디에도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내가 너무 싫었고, 애 쓰고 죽을 만큼 노력한 것이 너무 억울했고, 자꾸 화가 났다.

미국에서 같이 살던 친구들이 연락이 왔다. 한국으로 귀국한 시간은 모두 다르지만 다들 미국의 학교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나만 이렇게 한국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 생각했는데, 다들 비슷하게 적응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래도 3개월만 여기서 지나면 견딜만하다고 했다. 먼저 온 친구들 이야기는 3개월만 지나보면 한국이 더 좋고 애들 생각도 안 날 거라고. 그러면서 누구 엄마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누구 엄마는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고, 누구 네는 결국 이혼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서웠다.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낯선데 3개월을 견뎌내어야 한다는 게 아득하게 느껴졌다. 정말 3개월만 지나면 괜찮아질지 의심도 생겼지만 3개월이 마법의 성문인 것처럼 3개월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자꾸 아이들과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만 났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엄마와 아이가 탄 것을 봐도 눈물이 났고, '아이' 라는 단어만 나와도 울고,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났다. TV를 볼 수도 없었고, 노래를 들을 수도, 기도를 할 수도 없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집에 갇힌 채 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죽여 가고 있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아무 생각이 안 났고,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었다.

기러기의 흔적

남들이 말하는 3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멀리 있는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올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내 욕심으로 아이들이 이 땅으로 데려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다. 그래도 아이들을 이 땅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옆에 두고 오순도순 살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런 내 마음에 대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에서 묻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눈만 감으면 아련하게 보이는 미국 풍경. 미국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고국이었는데 나는 어느새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향수병, 아니 아이에 대한 상사병을 앓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여기 한국에 돌아와 살면서도 여전히 미국에 귀를 쫓긋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미국에 살 때는 한국은 남편과 가족이 살고 있는 나라여서 늘 한국 뉴스에 귀를 기울여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한국에 살면서 미국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 왜 나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이방인을 자처하는 걸까. 어쩌다 보니 기러기 가족이 되었고, 가족이 떨어져 살다보니 이 나라 저 나라 소식에 기웃거리게 되는 것 같았다.

이정표 만들기

사는 게 죽을 맛이었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성당에서 상담 교육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왜 상담이라는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담을 좀 받아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 상담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상담 교육시키는 데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상담사를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2013년 그렇게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공부를 통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 교육과 수련도 받아야 되지만 교육 분석도 필수로 받아야 했다. 나는 교육 분석동안 많은 눈물과 말을 쏟아내었고, 교육 분석 이후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선택이었고, 최선을 다한 나를 스스로 위로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함에 대해 미안했고, 누구의 사랑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의 엄마나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았던 역할 중심의 나를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15년, 교육 분석에서 나를 성찰 한 이후, 나는 하나님에게 한국 와서 처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견뎌준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한 미국 생활에서 우리 가족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억울하고 허무했던 내 인생이 감사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내담자를 만나고, 슈퍼비전에 참여하고, 집단 상담을 하고, 내담자의 아픔에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인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아이를 위한 기도와 걱정보다는 내담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아이들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으로 잘 살아가도록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상담이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싶다는 욕심도 가지게 되었다.

조금씩 달라지기

재결합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기러기를 떠나던 그 순간부터 남편의 기억의 시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어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재미있게 살자는데, 재미있다는 것의 의미도 틀리고, 이 땅에서 처음부터 살았던 내가 자식과의 이별로 힘든 것은 이해를 하지만, 내 땅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내가 적응을 하고 못하고는 생각도 못하는 듯했다. 내가 알던 남편이 더 이상 아니었다. 남편과 피터지게 싸워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부부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싸워야 우리 문제가 끝이 난다고 보았다. 답이 나오든, 결혼 생활이 끝이 나든 싸워야 결론에 도달한다고 느꼈다. 서로를 죽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알기 위한 처절한 싸움. 그러나 싸워 본 적이 없던 내겐 이런 싸움이 너무 싫었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굉장히 야속했다.

부부가 이렇게 깨지는구나 생각했다. 막말을 하고 서로 자신의 의견이 통하지 않으면 이해 못한다고 화를 내고, 대화하는 법도, 서로의 생각을 이는 것도 해 본적이 없으면서

서로 다 아는 것처럼 내 이야기하기에만 급급했다. 참 답답했다.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부부가 싸우다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상태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싸우면서도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절대로 안 바뀔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대로 깨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공존했다. 결국 깨는 거야 쉬운 거고 한 번 더 노력해보고 결정하자고 생각했다.

2018년, 처음에 낯선 사람처럼 어색하던 남편과의 관계도 이제는 많이 편안해졌고 그동안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나를 못나가게 하고 무조건 같이 하자고 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 결국, 부부란 독립된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함께 같은 데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과 나는 역할이 아닌 새로운 부부로서의 관계 맺기를 위해 오늘도 싸우고, 화해하고 있고, 여전히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체성 변화의 의미

기러기 엄마의 삶의 의미

기러기 엄마로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정체성 변화 과정은 주로 가족 관계에서의 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체성 변화로 나타났다.

첫째, '살아내는 이야기(SLB)'로서의 정체성은 가족 관계 속에서 주로 '무능한 엄마'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가족의 분거라는 중요한 선택부터 사소한 미국의 문화

관습에 이르기까지 정보도 지식도 없고, 계획성이 없었던 자신을 한없이 바보스럽다고 생각한다. 또 엄마의 무능함으로 인해 아이들을 더 고생시킨다는 미안함마저 들어 자괴감이 든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가족위주의 미국 사람들에게 기러기 가족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남편의 부재는 미국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더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나를 이해해주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과의 관계만 지속하면서 남편과의 소통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 일이라 늘 남편과 상의해야 했고, 내 결정이 잘 되었는지 남편에게 확인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이들 옆에 있어 주는 것만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느낀다. 그러면서도 엄마로서 자식 앞에서는 씩씩한 척 용감한 척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두려움마저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아이가 엄마의 감정으로 흔들릴까봐, 아이의 적응을 위해서라면, 내 감정보다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내어야 하는 엄마의 모습이 나타난다.

둘째,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는 자괴감 속에서도 엄마이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고 살던 연구자는 아이들과 분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이가 아프면 더 아프고, 아이와 한 몸으로 밀착되어 있던 것에서 처음으로 분리되면서 아이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신을 원망하고 인생의 허무감마저 느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인 무기력함 속에서도 연구자는 여전히 엄마로서 남기를 갈망한다. 대학 기숙사가 있던 딸아이를 깨워주고, 마치고 옆에 딸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과의 대화에 매달린다. 결국 아이

들과 함께 미국에 머무르기를 결정하고 한국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교포사회에도 유학생 사회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한계를 느끼던 연구자는 학교에 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전환점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 무능한 엄마로서는 자식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책임 질 수 있도록 강해지고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자녀들과의 이별을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나로 살아 갈 수 있음에 대해 기쁨을 느끼게 된다.

셋째, 기러기 엄마로서의 정체성 변화의 최종적인 형태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아닌 가족 안에서의 '나'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능한 엄마라는 자괴감으로 시작했던 기러기 엄마의 정체감은 자식과 분리되면서 "배움"이라는 전환점을 거치면서, 역할 위주의 엄마라는 이름으로부터 벗어나 가족 안에서의 개인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됨을 보여준다.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던 모습에서 자녀와의 분리 독립으로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성인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여유도 생겼다. 이는 더 나아가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한 연구자로서는 자녀들의 생활도 이해하고, 남편의 삶도 이해하는 중재자로서 가족을 화합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내의 아버지와 자녀 간의 정체성 갈등의 씨앗이 남아 있음도 보여준다.

이상에서 가족 관계에서의 역할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혼란스러웠던 과거의 감정들이 파편처럼 살아나기 시작했고, 때로는 몸까지 아

파왔고 주체할 수 없는 과거의 회상으로 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와 만나면서 때로는 자기 연민으로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과거의 내가 살던 곳에서 머물고 싶은 충동도 올라왔다.

재결합 후의 삶의 의미

기러기 엄마로서의 삶과 재결합 후의 삶을 비교해보면, 가족관계 안에서의 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첫째, 재결합 후 연구자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역할도 거부하며, 스스로를 '무기력한 엄마'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귀국을 하게 되면서 엄마 역할이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역할인 며느리와 아내의 역할이 기다리지만, 연구자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사는 엄마이고 싶고, 다른 역할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엄마이고 싶은데, 엄마가 될 수 없음으로 몸은 자꾸 아프고, 준비 되지 않은 귀국으로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상실감, 억울함, 외로움, 우울감, 낯설고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이질감,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한심스러움으로 스스로를 자꾸 격리시킴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있던 곳으로 당연히 돌아온 기러기 엄마가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분신이라 생각하던 아이들도 없고,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과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낸다.

둘째,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기러기 엄마는 스스로를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의미마저 상실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잘 적응해서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고 싶다는 엄마로서의 바

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적응하기는 어려워 보였고, 적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연구자의 정체성은 '배움'을 전환점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엄마로서의 정체성 대신 '나의 정체성이 다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상담 공부를 하고 교육 분석을 받으면서 비로소 나와 만나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었음 깨닫는 모습을 보인다. 깨달음 이후 삶은 수동적으로 저항하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고 스스로를 무기력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게 된다.

셋째, 재결합 후의 정체성 변화의 최종적인 형태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를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 남편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서의 나' 그냥 나로 인식하고 거듭나는데 있다.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두려워했던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은 상담 공부를 거치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자식과의 온전한 분리를 이루면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역할에 충실한 착한 아내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남편과의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며, 나와 가족의 정체성을 함께 수용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는 교육 분석을 통한 자기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고,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지금까지 아이와 분리되지 못했던 미숙한 엄마에서 아이를 지켜주고 믿어줄 수 있는 분리된 엄마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

자전적 내러티브의 의미

나의 내러티브를 쓰고, 다시 이야기 하고, 그 의미를 찾고 이러한 자전적 내러티브 과정

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상담과 교육 분석에서 나를 성찰한 것과는 다르게 더 세심하게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 성찰을 통하여 첫째, 기러기 엄마의 삶에서, 연구자 자신이 아이였고 아이가 나일 정도의 가족의 경계가 없는 밀착된 가족 유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편의 돌봄이 없는 미국 생활에서 홀로 자녀를 돌보고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심리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심리적 분리 독립의 형태로 바뀌어져 감을 보여준다. 또 재결합 후의 삶에서도, 중년기의 기러기 엄마는 새로 돌아온 낯선 상황에서도 아이와 분리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엄마로 남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이와 완전히 분리되면서 비로소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진정한 자기와 마주하게 된다. 이는 가족의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지나치게 밀착되었던 엄마-자녀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배제되었던 삼각관계 양상을 나타내던 가족 구조가 엄마와 자녀가 점차적으로 분리되면서 가족의 위계질서가 살아나고 가족이 기능적으로 변화감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자는 이전의 교육 분석을 통하여 성찰한 '나의 선택'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재결합 후 연구자는 나를 잃고 산 세월에 대한 억울함으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삶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억울해하였다. Hayes(2004)가 '수용(acceptance)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백지연, 2015)'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부정하게 되면서 스스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체로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utler & Ciarrochi(2007)가 ‘심리적수용(Psychological Acceptance)을 하게 되면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은 미국에서 기러기 엄마로 살 때의 삶에서나, 귀국 후 재결합하는 삶에서 모두 일정한 과정을 가짐을 알게 되었다. 기러기 엄마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는 ‘절망-배움-회복’의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기러기 엄마의 삶에서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절망하던 것에서 학교를 가게 되고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의 개인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었다. 재결합 후의 삶에서도 억울함, 상실감으로 무기력하던 것에서 상담 공부를 하게 되고 ‘배움’이라는 과정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행복을 찾기에 이르게 된다. 이는 상황과 상호 작용, 시간성이 다르게 상호 작용하지만 정체성 변화의 과정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은 연구자의 욕구가 ‘배움’이라는 전환점을 통해서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중년기동안 생성감이 중요 과업임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 (McAdams, 2004; Peterson, 2006; Peterson & Duncan, 2007; 이경혜, 김언주, 2001)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러기 엄마는 배움을 생성감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 확립은 생성감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기러기 엄마였던 연구자의 귀국으로 기러기 가족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우리 가족에게는 여전히 기러기 가족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미국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미국 뉴스에 귀 기울이고, 미국에 살 때는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족이 분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의 분거 때문이고, 여전히 가족이 각각의 나라에서 따로 살고 있으므로 기러기 가족의 정체성 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러기 가족의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의 아픔이 아이들의 아픔이고 아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 할 정도로 밀착된 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픔만이 더 커져 보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 사람과 직접 마주했던 아이들은 어쩌면 나보다 더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바꿔 읽어보면서, 정체성이 관계와 사회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남편과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억지로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아픔이 가슴에 파편처럼 박혔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애잔함으로 눈물이 났다. 이 모든 과정을 아직도 당연히 견뎌내어야 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느껴졌다. 이러한 글쓰기 작업은 때로는 나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나를 더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고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

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 엄마로 살아온 연구자의 경험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를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1년 동안의 기러기 엄마의 경험과 6년의 재결합 후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탐색하여,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기러기 엄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 변화와 그 의미를 상담학적 함의와 시사점 위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러기 엄마가 현지에서 적응할 때나 귀국 후의 적응 과정에서 똑같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러기 엄마에 대한 선행 연구들(김희정, 최연실, 2012; 김영희, 최명선, 이지향, 2005; 김경화, 2010; 김선미, 2007, 2009)에서는 기러기 엄마의 현지 적응 과정에서 의사소통 장애나 역할 변화 등으로 정체감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기러기 엄마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체감 혼란이 나타나는 것 뿐 아니라, 기러기 엄마가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적응 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적응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역할 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우울, 불안, 상실감 등으로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러기 엄마에게는 귀국 후의 적응도 귀국 전 현지 적응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러기 엄마의 귀국 후

국내 재적응 과정을 돕는 상담이 필요하다.

둘째,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의 변화는 무엇보다 가족관계 내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녀양육 역할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들(Barnett & Baruch, 1985; Steinberg & Silverberg, 1987; 김경신, 김정란, 2001; 이경혜, 김언주, 2001; 최원희, 2006; 정은숙, 2009; 태유월, 구자경, 2014)과 일치하며, Erikson이 주장한 중년기의 발달과업인 생성감이 자녀양육을 통해 상당부분 형성된다는 Peterson과 Duncan(2007)의 연구(백지연, 2015, 2016)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기러기 엄마도 기존의 한국에서 살아온 중년 여성도 모두 자녀 양육 역할이 자아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 변화도 중년 여성의 역할 상실로 인한 위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귀국한 중년의 기러기 엄마에게 중년여성의 역할 상실과 연결하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들이 느끼는 회의감, 무력감 등의 개인 내적인 정서를 다루는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러기 엄마가 자녀와 심리적으로 융합되어 가족의 경계가 붕괴되었다가, 다시 가족의 경계가 분명해져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러기 엄마의 경험에서는, 자녀와 극도로 밀착된 관계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결합 후의 경험에서는 중년기 기러기 엄마는 자녀와의 밀착 의존에서 벗어나 자녀와 지리적·심리적 으로 완전히 분리 개별화 되면서 부부 중심의 독립적인 구조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연, 하상희의 연구(2010)에서 인간은

중요한 타인으로 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분리 개별화를 이룸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게 되고, 비로소 성인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분리 개별화 과정을 이룸으로써 성인기로 전환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기러기 엄마는 성인기가 아닌 중년기에 자녀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면서 자신을 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백지연의 연구(2015, 2016)에서 중년기 여성 가장이 성인기가 아닌 중년기에 심리적 독립을 이룬다는 것과 일치하며, Hoffman(1984)의 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적 독립으로 개인으로서의 정체감이 형성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기러기 엄마가 중년기에 자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심리적 독립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족의 경계를 재구조화하여 가족의 위계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부하위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기러기 엄마의 삶과 재결합 후의 삶에서 나타나는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은 '절망-배움을 통한 전환-회복'의 경향을 나타내 보이는데,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이 배움이라는 전환점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알았으며, 재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기러기 엄마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Erikson(1968)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 해볼 수 있는데,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가운데 생산성(generativity)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need to be needed)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념(McAdams & Aubin, 1992; 장영립, 2013)으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상당 부분 형성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백지연, 2015, 2016). 지금까지 생산성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었던 자녀 양육의 역할이 상실되면서 쓸모없다고 느끼고 절망하던 기러기 엄마가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쓸모 있는 생산성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러기 엄마는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배움과 같은 생산적인 역할을 통해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쓸모 있는 인간이고 싶다는 연구자의 욕구가 배움이라는 전환점을 계기로 욕구가 충족되어 지면서 정체성을 새로 형성하게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재적응 과정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한 중년여성들을 위해 생산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기러기 엄마 경험과 재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다룬 실증적인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대부분의 기러기 엄마에 대한 선행 연구는 기러기 엄마의 현지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김선미, 2007; 2009; 강유진, 2009; 김경화, 2010; 양미진 등, 2014; 조인효, 김미선, 2014)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년기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러기 엄마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 나타난 정체성의 의미를 밝혀, 중년기 기러기 엄마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러기 엄마의 재적응 과정도 현지 적응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러기 가족의 재결합이나 재적응을 다룬 국내 연구는, 기러기 아빠의 순차적 이민을 통한 기러기 가족의 재

결합 과정을 다룬 조은숙(2010)의 연구 한 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러기 엄마의 현지 적응뿐만 아니라 재적응의 과정을 함께 다루고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상담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미국 중소도시에서 거주했던 연구자이면서 연구 참여자인 사람의 주관적인 이야기로 그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으로 기러기 엄마의 종단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 연구 등 다양한 연구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기러기 엄마가 아이들을 미국에 두고 홀로 귀국하여 재결합 한 경우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기러기 생활을 끝내고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재결합 한 경우나 남편이 미국으로 역 이민한 경우와는 재결합의 상황적 맥락이 다를 수 있고 그 정체성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결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기대되고, 기러기 생활과 재결합 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재결합 과정에서 부적응 현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러기 엄마에 대한 상담적인 개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셋째, 본 연구는 기러기 가족 중 기러기 엄마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기러기 가족은 기러기 엄마만이 아닌 모든 가족이 포함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러기 가족 전체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그 가운데 기러기 가족으로 생활하는 동안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

며, 그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09). 기러기 가족의 초국적 적응전략 및 가족 경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05-221.
- 김경신, 김정란 (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성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4), 105-120.
- 김경화 (2010). 재미 기러기 어머니의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11-239.
- 김계순 (2018). 중년여성 만학도의 성장육구와 의미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2007). 재미 국제 장기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기러기 엄마'되기 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 171-189.
- 김선미 (2009). '기러기 엄마로 살기' : 일상생활의 구성 그리고 관계 맺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41-59.
- 김성숙 (2006). 기러기 아빠의 생활변화와 적응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김양호, 김태현 (2009). 장기분거 가족에 대한 일 연구: 기러기 가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97-326.
- 김양희, 장온정 (2004). 장기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김영희, 최명선, 이지향 (2005).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실태연구. *대한가정*

- 학회지, 43(11), 141-152.
-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기러기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07-133.
- 김춘경 (2010). 중년기 우울 여성의 우울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1(4), 1783-1806.
- 김희정, 최연실 (2012). 자녀 해외유학 '기러기 가족'의 가족구조 분석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관점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3(6), 2965-2986.
- 변외진, 김춘경 (2007).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255-276.
- 백지연 (2015).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 변화-사진작업을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지연 (2016). 사진치료에 참여한 중년여성가장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555-585.
- 양미진, 손재환, 김인규 (2014). 기러기 가족의 성공적 적응요인 연구. 교육종합연구, 12(4), 143-164.
- 유준호, 홍은주 (2012). 조기유학에 의한 분거가족의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4(1), 39-60.
- 윤영미, 차명호 (2018). 자살유가족의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한 상담학적 함의와 과제. 상담학 연구, 19(4), 109-123.
- 이경혜, 김언주 (2001). 중년여성의 역할적응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5(2), 157-176.
- 이남주 (2006) 중년기여성의 위기감과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227-237
- 이두휴 (2008). 기러기 아빠의 교육적 희망과 갈등 연구. 교육문제연구, 32, 21-46.
- 이복희 (2008). 취업 및 미취업 중년기 기혼여성의 가계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복희, 박아청, 이경혜 (2010)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경제수,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03-120.
- 이옥희, 이지연 (2012). 중년기 생성감 (Generativity)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 연구, 13(2), 665-688
- 이주연, 하상희 (2012). 부모 애착이 남녀 대학생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이성 관계 태도의 매개 경로 분석. 상담학 연구, 13(6), 2821-2837.
- 장영림 (2013). 중년기여성의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생산성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2013).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조 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연구. 경제와 사회, 겨울호(통권 64), 148-171.
- 정은숙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정체감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숙 (2010). 기러기 가족의 분거와 순차적 이민을 통한 재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변화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91-115.
- 조인효, 김미선 (2014). LA에 거주하는 한국 기러기 엄마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 25(4). 309-341.

- 조인효, 심은정 (2014). 재미 기러기엄마의 경험과 성장: 관계문화적 상담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273-299.
- 조혜자 (2002). 비본질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자아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15-130.
- 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299-313.
- 최양숙 (2005). 비동거가족경험-“기러기 아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양숙 (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 문화, 18(2), 37-65.
- 최양숙 (2008). 자녀의 조기 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67-98.
- 최원희 (2006).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요인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41-150.
- 태유월, 구자경 (2014).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역할적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5(1), 519-534.
- Adelmann, P., Antonucci, T., Crohan, S., & Cpleman, L. (1989). Empty nest, cohort, and employment in the well-being of midlife women. *Sex Roles*, 20, 173-189.
- Barnett, R., & Baruch, G. (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35-145.
- Butler, J., & Ciarrochi, J. (2007).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quality Life Res*, 16(4), 607-615.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 민정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은 2000년 출판).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eeman, M., & Brockmeier, J. (2001). Narrative integrity: Autobiographical identity and the meaning of the “good life”. *Narrative and Identity: Studies in autobiography, Self and Culture*, 75-99.
- Hayes, Steven C. (2004).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relational frame theory, and the third wave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Behavior therapy* 35(4), 639-665.
- McAdams, D. P., & de St. Aubin, E. (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03-1015.
- McAdams, D. P. (2004). Generativity and the narrative ecology of family life. In M. W. Pratt & B. H. Fiese (Eds.), *Family stories and the life course*, 235-257.
- Peterson, B. E. (2006). Generativity and successful parenting: an analysis of young adult

-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74, 847-869.
- Peterson, B. E., & Duncan, L. E. (2007). Midlife women's generativity and authoritarianism marriage, motherhood, and 10 years of aging. *psychology and Aging*, 22(3), 411-419.
- Rubinstein, R. (1994). Generativity as pragmatic spirituality. In L. E. Thomas and S. Eisenhandler (Eds.) *Aging and the Religious Dimens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Shober, M. M. (1993). Psychsocial Development in Women: Childfree Versus Childbearing Wom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 10, 3902.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7).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middle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2, 751-760.
- 1차원고접수 : 2019. 01. 30.
심사통과접수 : 2019. 09. 04.
최종원고접수 : 2019. 09. 29.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Recognition of Identity of a Wild Goose Mother based upon Her Autobiographical Narratives

Jeungmee Park

Eunha Kim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identity of a middle-aged Korean wild goose mother, after her reunion with the family members in South Korea, her homeland. Focusing on her autobiographical narratives, we collected the data for this study that included her memories from the past, educational analysis counseling, diaries, e-mails, memos, and SNS records. Through the three-dimensional narration inquiry space consisting of time, space, and interaction, her various experiences were categorized by their themes. Then, the meaning of those experiences was reconstructed by each them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changes in the identity of the wild goose mother appeared mainly due to her role in the family relationship; to be more specific, her life changed from an 'incompetent mother' to an 'arbitrator among the family members'; and after the reunion, her recognition of her identity changed from 'not being able to do anything with the sense of loss' to 'being reborn as her own self'. In the process of autobiographical narratives, in which she wrote her own story, recollected her experiences, and found their meaning, she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renew her perspective toward her own life. Through these reflection, she was able to find the following new meaning of her life based on her changed identity: first, in the process of identity changes, her extreme adherence to her children gradually changes to psychological independence; second, accepting a victim-like feeling that made her deny her past life and recognize herself to be useless, she realized that every feeling she experienced was caused by her own choice; third, a process of 'transition-recovery' appeared through the process of 'despair-learning'; and fourth, it seems too early to arrive at a conclusion, as the family is still separated and the identity as a wild geese family is still ongoing. Focusing on major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of her identity changes in terms of counseling studies and what they indicate.

Key words : Wild Goose Mother, Family Reunion, Middle-aged Women, Identity Change, Autobiographical Narratives